

# 광주 확진자 100명, 1000명 대비해 맞춤형 로드맵 구축해야

### 감염전담병원 지정 늘리고 음압병상 확충공사 서둘러야 경·중증 구분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 확보 대확산 대비

#### 코로나19 극복 전문가 제언

호남 의료 거점 도시인 광주에 코로나19 전문 의료인으로 꼽히는 감염내과, 예방의학 전문의는 각각 10명(전남대병원 6명, 조선대병원 3명, 기독교병원 1명)과 8명(전남대 4명, 조선대 4명) 등 총 18명 뿐이다. 호흡기 내과로 범위를 확대해도 14명을 추가해 32명 수준이다.

감염병 전문 의료인들은 광주대 대구처럼 코로나19의 대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진자 100명, 1000명, 1만명 등 단계적 발생을 가정해 방역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에게 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를 들어봤다.

◇전남대·조선대 병원 선별 진료소부터 옮겨라=의료계에선 광주·전남과 전북권 응급·중증 환자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에 '코로나19 선별 진료소'가 설치된 데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선별진료소를 찾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응급실 등에 접근할 경우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데, 중증 환자 치료만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의료진을 선별진료소까지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광주시에 수차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의료인들의 하소

연이다.

의료계에선 선별진료소 업무는 보건소 등이 담당하고, 이들 기관의 업무 경감을 위해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 진료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분 이상 소요됐던 검체 채취과정이 10분 안에 이뤄지고, 대기 중 피검자 간 감염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진 확보·감염병 전담병원 등 시설 확보하라=시는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시립제2요양병원 두 곳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105병상)하고, 우선 빛고을전남대병원에 80명 안팎의 환자 수용 시설을 마련했다. 감염병 치료 전문시설인 음압병상은 국가지정 12실 등 총 31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의료계에선 이 정도 시설만으로는 집단 감염사태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경증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 및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음압병상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광주시 차원에서 행정 절차를 단속하고, 지금 당장 공사에 착수하는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료인은 "대구처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에는 감염 업무(진단, 검사 등)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있어 모든 방역 업무가 뒤죽박죽이 된다"면서 "실제 대구의 경우 집단감염 사태 발생 후 일주일

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시설확충은커녕 환자관리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에 집단 감염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조언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 시설을 마련했다라도, 전문 의료인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서 전문 의료진(간호사 포함)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대규모 환자 발생시 경증과 중증을 구분해 효율적으로 격리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데, 해당 분야 의료인이 아니라면 추가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 컨트롤타워에 의료인 포함하라=코로나19 발생 후 조직된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부시장, 시민안전실장, 통제관(복지건강국장) 순으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 실·국·은 통제관 아래 놓여있는 구조다.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사실상 결정짓는 시장부터 통제관까지 전문 의학 지식을 갖춘 인물이 없다면, 지역 의료계와 소통이나 교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특성상 비전문 그룹인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지시를 불신하는 경향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타 지역의 경우, 서울시만 해도 통제관 자리를 의료인 출신이자 우리나라 역학·예방의학회 임원을 지낸 인물이 맡아 진두지휘하고 있다. 광주 의료계에서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의료계 원로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가 1일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들을 받아격리치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빛고을 전남대병원 내부에 출입자의 발열을 검사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문 대통령 “마스크 공급 모든 대책 강구” 긴급지시

### 식약처장에 질책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의경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스크 공급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

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마스크 공급 문제에 있어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마스크 공급을 두고 정부 발표와 실제 현장공급 시점에 차이가 생기

는 등 혼선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에 대한 질책성 발언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마스크 공급과 유통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시급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엄중한 시국임을 고려하면 제도적인 미흡함을 현저하게 지적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마스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자세히 국민에게 알리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기념탑 참배만...광주시·전남도 3·1절 기념행사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주와 전남에서는 올해 3·1절 기념행사를 최소 규모로 간소하게 치렀다.

광주시는 3·1절 101주년 기념식과 타종식, 포상 전수식을 취소하고 독립운동 기념탑 참배만 간소하게 치렀다.

독립운동기념탑 참배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

주시교육감,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 김갑제 광복회 광주전남지부장 등 5명만 참석했다.

이 시장은 3·1절 101주년 기념 성명에서 “다 함께 모여 3·1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하마”며 “코로나19 위기를 3·1 독립운동 정신과 하나 된 힘으로 헤쳐나가자”고 밝혔다.

전남도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3·1절 101주년 기념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목표 부흥선 현충탑 참배만 진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장석용 전남도교육감 등 소수 인원만 참석했다.

시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시민단체, 학생 등이 주최한 각종 3·1절 기념행사도 올해는 모두 취소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유증상 신천지 신도 205명 중 190명 음성...15명은 검사 중

### 통화 안된 924명 소재 파악

### 명단 추가 제출 안하면 고발

전수조사에서 증상을 호소한 광주지역 신천지 신도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결과 190명이 음성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만4883명의 신천지 신도 명단(교육생 포함)을 전달받아 전수조사에 착수한 결과, 유증상자 205명(신도 193명, 교육생 12명)을 확인했다. 이들 중 190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나머지 15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또 전수조사에서 연락이 닿지 않은 신도 663명과 교육생 261명 등 1008명에 대해서도 광주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으며, 924명의 소재가 추가로 파악됐다. 시는 통화 연결이 안된 155명과 뒤늦게 명단이 통보된 교육생 261명 등 416명을 대상으로 전화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이날 신천지 광주교회 측이

밝힌 지역 내 신도·교육생 3만2093명과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신도·교육생 명단 2만4883명의 숫자가 7000명 이상 차이 난다며 신천지 측에 추가 명단을 요청했다. 시는 추가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현황브리핑에서 “전체 명단을 확보해야 누가 대구에 갔는지,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현재 증상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며 “오늘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고발하겠다. 고발 조처는 베드로 지파(광주·전남)는 물론 교단 총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9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과 신도들에게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총회장에게는 “지난 16일 대구집회 참석자 및 전체 신도 명단 제출 명령을, 전남지역 신도에게는 ‘대구 방문자 관찰보건소 즉시 신고’를 명령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는 이 총회장과 신도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뒤따른다고 경고하는 한편, 위반시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6일부터 정부에서 받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만 5681명과 시군에서 자체 파악한 378명 등 총 1만 6059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만 5629명(97.3%)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쳤다.

유증상자 119명 중 94명은 음성이거나 나머지 25명은 검사 중이다. 현재까지 전화, 문자 메시지 등 계속된 연락에도 불구하고 소재 확인이 안된 신도 430명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와 위치 추적을 벌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천지 교회는 미통보자 명단을 하루 속히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대구집회에 참석했거나 대구지역을 방문한 신도 등은 자진 신고하고 유증상일 경우 즉시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증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